시마네 이모저모

Vol. 70

花のある島根の風景

自然豊かな学生生活

２０００年の古代ハスを育てること
―地道な努力により語り継がれるストーリー―

故郷を守る植物・海岸線の白い花―「ハマボウフウ」

꽃이 있는 시마네의 풍경

자연이 풍부한 학창 시절

2000년의 고대 연꽃을 기르는 것 — 꾸준한 노력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

고향을 지키는 식물, 해안선의 하얀 꽃 — '갯방풍'

자연이 풍부한 학창 시절

미우라 카롤리나 모모에

학교에 식물원이 있다니!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마네현립이즈모고등학교에는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학교 식물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라타 식물원입니다.

계절을 화려하게 꾸미는 식물들이 모인 식물원은 1904년 당시 교사였던 히라타 고마타로 님에 의해 창설되었기에 '히라타 식물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미 1세기를 넘긴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히라타 식물원은 이즈모고등학교의 교지와 규초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뒷산을 포함한 일대를 가리킵니다. 히라타 식물원에는 탐방을 위한 4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학교 건물 사이에 2개 코스, 규초원 내부에 2개 코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규초원의 주요 코스는 산 정상에 위치한 광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 정자, 그리고 새들이 물을 마시는 장소를 통과합니다.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도 들을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중한 장소이며, 이즈모고등학교 교가의 일부에서도 규초원 들어가 있을

自然豊かな学生生活

三浦カロリナ百恵

学校に植物園があることを素敵だと思いませんか。

島根県立出雲高等学校には、全国にも類のない学校植物園が存在しています。それが平田植物園です。

季節を彩る植物が集まる植物園は、1904年に当時教諭であった平田駒太郎氏によって創設されたため「平田植物園」と名付けられ、すでに一世紀を超えた伝統のある場所です。

平田植物園は、出雲高校の校地と久徴園と名付けられた裏山を含む一帯を指しています。

平田植物園を巡るためには4つのコースがあり、校舎間に2コース、久徴園に2コースあります。

久徴園のメインコースは、山頂広場に向かう階段の途中にある東屋や野鳥の水飲み場を通ります。野鳥の鳴き声や風に揺れる木々の音も聴くことができて、心安らぐ貴重な場所であり、出雲高校の校歌の一部分でも久徴園が歌われているほど、生徒にとって身近な場所であることには違いありません。

久徴園のサブコースでは、冬に咲く肥後椿のトンネルをくぐり抜けて、階段からグラウンドを見下ろすことができます。四季の花々を観察しながら散歩できるのが魅力的で、学生生活のいつの時期でも記憶に残る植物園です。

また、校舎間のコースでは、平田先生が植えた一世紀を超えるラクウショウやテーダマツ、大王松等が今でも残っており、2005年に行われた校舎改築では、これらの樹木を保つよう慎重に工事が行われ、学舎内の緑の環境を守る熱意が伝わります。

植物園を末永く守るために卒業生にも協力してもらい、生徒や教員が年1回秋頃に管理や手入れ、除草等のボランティア整備活動を行っています。また、植物の名前、科名、特徴を名札板にして取り付けを行ったり、ガイドブックの「平田植物園めぐり」やパンフレット制作を行ったりと、植物園の素晴らしさを様々な形で見せるように心がけています。

ボランティア活動には数十年前の卒業生も参加しているため、お手本となる方々が熱心に植物園を守ろうとしている姿が、きっと今の生徒の心に響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71年間継続して植物園の管理人がいて、同時にボランティアがいるからこそ

自然豊かな学生生活

정도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입니다.

규초원의 서브 코스에서는 겨울에 피는 동백꽃이 있는 터널을 지나면 계단에서 운동장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 꽃들을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 학창 시절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또한 학교 건물 사이 코스에는 히라타 선생님이 심은 1세기를 넘긴 낙우송와 테다소나무, 대왕송 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5년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 신중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교 안의 녹색 환경을 지키려는 열정이 전해집니다.

식물원을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해 졸업생들의 협력도 받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은 매년 1번씩 가을에 관리와 손질, 제초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이름, 과명, 특징을 이름판으로 붙이거나, '히라타 식물원 탐방'과 같은 안내서 제작을 통해 식물원의 멋짐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는 수십 년 전 졸업생들도 참여하고 있어,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현재 학생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1년 동안 이어진 식물원 관리자의 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공존했기에 지금의 히라타 식물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바라보는 식물원과 쉬는 시간에 편히 쉴 수 있는 정원은 하루하루가 바쁜 학생들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치유되는 힘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연이 넘치는 매력적인 환경에서의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라타 식물원의 미래를 향한 숲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멋진 보호 활동이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今の平田植物園が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教室から眺める植物園や休憩時間にのんびりできる中庭は、毎日忙しい学生にとって大切な存在であり、日々のストレスから人々を解放し癒す力があると思います。自然に溢れた魅力的な環境での学生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世代を超えて、様々な人が力を合わせて守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平田植物園の次なる百年の森づくりのために、これからも素敵な保護活動を継続できることを心から願います。

2000년의 고대 연꽃을 기르는 것
— 꾸준한 노력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

곽소현

"최고로 꽃이 핀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진다니 박물관 부관장 아오키 아키라 님이 큰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아오키 아키라 님에 의하면 고진다니에는 6개의 고대 연꽃 논이 있으며, 전성기에는 재배 면적이 5,000제곱미터에 달했다고 한다.

고진다니 고대 연꽃은 오가하스라는 품종이라고 한다. 1940년대, 연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쿄도는 지하의 초탄 자원에 주목했다. 우연히도 지바현 게미가와 지역의 습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몬 시대의 배 정박장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서 3개의 연꽃 씨앗을 발견했다. 1952년, 식물학자 오가 이치로 박사가 그중 1개의 씨앗 개화를 성공시켰고, 시카고 대학 원자핵 연구소에 의해 그 씨앗이 야오이 시대 이전의 것(현재부터 2,000년에서 3,000년 전)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꽃은 오가하스로 이름이 붙여졌고,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후, 오가하스는 지바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우호 친선과 평화의 상징으로 뿌리나눔과 분주가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물론 세계 각지로 전해졌다. 처음으로 오가하스를 나눠 받은 시설이 그것을 번식하고, 다시 다른 시설에 보내는 일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시설이 오가하스를 재배하고 있는지 아오키 아키라 님도 모른다. 참고로 고진다니의 연꽃은 1988년에 시마네현 오다시로부터 기증된 것이다.

내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글을 읽는 중국인들은 분명 슬슬 웅장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꽃을 보호하고 기르는 것은 대부분이 일상의 꾸준한 시행착오의 반복이다.

"올해는 꽃이 잘 피었어요"라고 아오키 아키라 님은 말한다.

처음에 오다시로부터 기증된 연꽃은 15그루였고, 1,220제곱미터의

2000年の古代ハスを育てること —地道な努力により語り継がれるストーリー—

郭小軒

この写真は「最高に咲いた年と言われています」

大きな写真を指しながら、荒神谷博物館の副館長青木昭さんが言う。

青木さんによれば、荒神谷には6枚の古代ハスの田んぼがあり、最盛期の栽培面積は5000平方メートルに達したそうだ。

荒神谷の古代ハスは、品種をオオガハスという。1940年代、燃料不足を補うため、東京都は地下の草炭資源に着目した。偶然にも千葉県検見川地域の湿地を採掘した際、縄文時代の船だまりを発見し、その中で3粒のハスの種が見つかった。1952年、植物学者の大賀一郎博士がその中の1粒の開花に成功し、シカゴ大学原子核研究所による土壌測定で、その種が弥生時代以前のもの(今から2,000から3,000年前)であると推定された。よって花は大賀蓮(オオガハス)と命名され、世界中で大々的に報道された。

後に、オオガハスは千葉県の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友好親善と平和のシンボルとして、根分けや株分けされ、日本は元より世界各地に贈られた。最初にオオガハスを分けてもらった施設がそれを繁殖し、また他の施設へと贈ることが数十年に渡り行われてきた。今やどれほどの施設がオオガハスを栽培しているのか、青木さんも分からない。ちなみに荒神谷のハスは、1988年に島根県大田市から贈られたものだ。

私が中国出身だから言えるのだが、ここまで読んだ中国人はきっと、壮大な物語がそろそろ出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を膨らませているだろう。しかし、このハスを保護し育てる日常は、ほとんどが地道な試行錯誤の繰り返しだ。

「今年は花がよく咲いたんです」と青木さんは言う。

当初大田市から贈られたハスは15株で、1220平方メートルの田んぼに植えられた。今は最盛期から4000平方メートルに縮小し、花の数もここ数年大きく減少している。今年ここまで回復するのにかなり苦戦されたのだ。

「ここにザリガニがたくさん住んでいて、田んぼに穴を開けて、そのお陰で水が溜まらない状況がずっと続いていました」

でも農薬を使いたくないため、職員達は田んぼの水が漏れないように田んぼの周りに防水シートを敷き、子供たちにザリガニ釣りを楽しんでもらうことを考案した。これらの方法により、古代ハスは、中国で言う「科技与狠活」(直訳は「技術と過激な手段」)にさらされなくて済む一方、効率はもちろん下がる。

「ザリガニは一度に数百匹の卵を産むので、なかなか完全に減らすことはできないです」

しかし、一番厄介なのは雑草だった。

「以前は人力で草取りをしたと聞いてますけど、草はもう中の方にたくさん生

논에 심어졌다. 현재는 전성기 때보다 4,000제곱미터로 축소되었고, 꽃의 수도 최근 몇 년간 많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이만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재가 많이 살고 있는데, 가재가 논에 구멍을 뚫기 때문에 논에 물이 고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나 농약을 사용하고 싶지 않기에 직원들은 물이 새지 않도록 논 주변에 방수 시트를 깔고 아이들이 가재 잡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러한 방법은 고대 연꽃은 소위 '기술과 과격한 방법'에는 노출되지 않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

"가재는 한 번에 수백 마리의 알을 낳기 때문에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잡초였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잡초를 제거했다고 들었는데, 잡초가 안쪽에 많이 자라고 있고 연꽃도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연꽃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꽃을 상하게 할 수 없어서 잡초 제거를 그만두었습니다."

누수가 가장 심할 때는 일부 지반에 갈라진 틈이 생겨 많은 식물이 물 부족으로 말라버렸다. 그래서 직원들은 방수 공사 후 인접한 논의 연꽃을 이식해야 했지만, 그 성장도 잡초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고대 연꽃의 보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연꽃을 보낼 때, 아오키 아키라 님은 '지역 발전이나 도시 개발에 활용될 수 있거나, 제대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시설에서 잘 기를 수 있는지' 등 일정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용실에서 들었던 미용사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일본인의 머리 모양이 '평평하고 네모나기' 때문에 미용사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인의 머리 모양이 일본인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섬나라 일본은 항상 제한된 자원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싸워왔다. 그 과정에서 강력한 역경 극복 능력이 배양되어 현재의 일본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다.

애초에 고대 연꽃이 고진다니에서 피는 것은 40년 전 이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 종, 창이 있으며, 제작 시기가 고대 연꽃과 같은 야요이 시대이다.

현재 고진다니 박물관의 기획 감독을 맡고 있는 신지 토시히로 님은 발굴 당시의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관람하러 오셨고, 헬리콥터도 날아다녔습니다"라고 말한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과 창은 본래 중국이나 조선 반도의 것이지만, 일본에 들어오면서 바로 무기에서 축제용 제기로 바뀌었습니다. 야요이 시대, 대륙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이 청동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 고진다니에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도 아기를 안은 브라질 부부가 오고 있었다. 이 지역에 사는 브라질 사람들은 대부분 근처 공장에서 일하며, 주말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바비큐를 즐기곤 한다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고진다니의 접수처에서 고대 연꽃 씨앗이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작은 씨앗들은 다양한 사람의 손에 전달되고, 심어진다. 그리고 고대 연꽃의 생명과 사람들의 노력과 그 이야기는 고진다니와 새로운 토양에서 앞으로도 계속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えていてハスも芽を出しており、下にはハスの株もあったりするので、ハスを傷め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草取りはやめました」

漏水が最もひどい時は、一部の地盤に割れ目が入り、多くの株が水不足により枯れてしまった。そのため、職員達は防水工事後、隣接する田んぼのハスの株を移植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が、その成長も雑草に影響される。

このように、古代ハスの保護は決して簡単なものではない。それゆえ、他の施設にハスを贈る時、青木さんは「町おこしや街づくりに使ってもらえるか、ちゃんと人に見てもらえるような施設で、大事に育ててもらえるか」などと、一定の基準を設けていると言う。

先日行ったヘアサロンで聞いた美容師の言葉を思い出した。彼は、日本人の頭の形は「平らで四角い」から、美容師は一生懸命技術を磨くことを要されると言っていた。(中国人の頭の形が日本人より良いとは思えないが、)島国の日本は、常に限られた資源と予期せぬ自然災害と戦ってきた。その中で超強力な逆境力が鍛え上げられ、現在の日本の発展と国際地位に繋がったのかもしれない。

そもそも古代ハスが荒神谷に咲くのは、40年前にこの地で発見された青銅器が直接関係している。これらの青銅器には銅剣、銅鐸、銅矛があり、その製作時期が古代ハスと同じく弥生時代なのだ。

現在荒神谷博物館の企画監を務める宍道年弘さんは、当時の発掘作業に関わった。

「たくさんの方が並んで見学に来られましたし、ヘリコプターも飛びました」と彼は言う。

「銅剣や銅矛は元は中国や朝鮮半島のものですが、日本に入ってきたら、すぐに武器からお祭り用の祭器として変わってくるんです。弥生時代において大陸から日本へ渡来してきた人々によって、これらの青銅器がもたらされたのです」

今の荒神谷には、多くの外国人観光客が訪れる。私達が滞在している間にも、赤ちゃんを抱えたブラジル人夫婦が来ていた。この地域に住むブラジル人の多くは近くの工場で働いており、週末はよくバーベキューサイトで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ているそうだ。

帰り際に、荒神谷の受付で古代ハスの種が売られているのに気付いた。これらの小さな種は、あらゆる人の手に渡り、植えられる。そして古代ハスの生命と人々の努力とそのストーリーは、荒神谷で、新たな土壌で、今後も芽を出し、株を作り、未来に継がれていくだろう。

고향을 지키는 식물, 해안선의 하얀 꽃 — '갯방풍'

탕총

30년 넘게 살았지만, 처음으로 '갯방풍'이라는 식물(중국에서는 대부분 '珊瑚菜 산호채'라고 부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 "갯방풍이 콜리플라워 형제처럼 닮았네!"라는 첫인상이 들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생긴 건 평범해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용도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고급 식자재나 한방 약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방풍과 모래막이 기능도 가지고 있어 해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에서는 갯방풍이 국가 2급 보호 식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모래사장에 저절로 생겨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진 채로 저희는 나가하마 지역 자치협회 회장인 이타가키 유지 님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갯방풍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갯방풍은 염분과 물을 영양분으로 하는 미나릿과 식물로 해변의 모래사장과 근해 산지에서 저절로 생기며, 뿌리줄기는 지하 80센티미터까지 깊게 뻗어 있고 잎이 땅을 효과적으로 덮어 모래가 날리는 것을 방지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타가키 회장은 우리를 나가하마

故郷を守る植物・海岸線の白い花──「ハマボウフウ」

湯　聡

30年以上生きてきて、初めて「ハマボウフウ」という植物の名前(中国ではほとんどの人が「珊瑚菜」と呼んでいる)を聞き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で画像を検索してみると、「これはカリフラワーの兄弟じゃないか?すごく似てる!」と思ったのが最初の印象でした。さらに面白いことに、見た目は平凡でも多くの予想外の用途が隠されていました。高級食材や漢方薬として使用されるだけでなく、防風・砂止めの機能も持っており、海辺に住む人々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っています。特筆すべきは、中国ではハマボウフウは国が指定した保護植物だということです。この珍しい植物が砂浜に生えているとは、驚きです。

多くの疑問を抱えたまま、長浜地区自治協会の会長である板垣祐治さんにインタビューを行い、ハマボウフウについてさらに詳しい話を伺いました。

「ハマボウフウは塩と水を栄養素とするセリ科の植物で、海辺の砂浜に生育し、根茎は地下80センチメートルに深く、その葉が地面を効果的に覆い、飛砂を防ぎます」と説明しながら、板垣会長は私たちを長浜海岸に案内してくれました。7月はすでに花の時期を過ぎていたため、白い花はわずかしか見られませんでしたが、花の咲く季節には砂浜が一面真っ白になり非常に美しいそうです。板垣会長は、「ハマボウフウが増えて砂が見えなくなるのが理想ですが、自然と戦うのは難しいです」と話していました。過去の過度な採取のため、ハマボウフウの数が減少し続けました。絶滅を防ぐため、自治協会と学校が連携、そして行政も関わり、ハマボウフウの再生に取り組みました。

「秋になると、島根県立出雲農林高校の植物学専攻の生徒たちが、小学生たちと一緒にハマボウフウの種を収穫し、高校生たちが学校に持ち帰って発芽させ、翌年に苗を砂浜に戻します」と板垣会長は述べました。この活動は14年間

해안으로 안내했습니다. 7월은 꽃이 지는 시기로 우리는 꽃을 몇 줌밖에 볼 수 없었지만, 꽃이 피는 시즌에는 해변이 온통 새하얗게 되어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타가키 회장은 "갯방풍이 늘어나서 모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이상적이지만, 자연과 싸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과도한 채취로 갯방풍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치협회와 학교의 노력, 그리고 행정의 지원이 갯방풍의 재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타가키 회장은 "가을이 되면 시마네현립이즈모농림고등학교 식물학 전공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갯방풍의 씨앗을 수확하고, 고등학생들이 학교로 가져가서 발아시킨 후 다음 해에 묘목을 해변에 다시 심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활동은 14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해변에 '갯방풍을 지키자'라는 등의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많은 지역 주민의 노력 덕분에 채취 행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게 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이타가키 회장은 "씨앗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심게 하여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접 체험함으로써 심는 행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채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이게 진정한 목적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즈모농림고등학교의 식물학 전공 교사와 학생들은 갯방풍의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일련의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 관련 분야의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타가키 회장은 관련된 신화 이야기를 소개한 뒤 "나가하마 해안의 모래언덕은 나가하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후세에 남길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얀색이 순결, 평화, 신성을 상징하듯,

하얗고 순결한 갯방풍은 이 아름다운 신화의 땅에서 살아가며 선량한 사람들과 서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続けられており、「ハマボウフウを守ろう」などの看板が設置され、また地元住民の協力のおかげで、採取行為は大幅に減少しました。私が「なぜもっと多くの人に種を植えさせないのか」と尋ねると、板垣会長は「種の数が限られているのと、小学生自身に植えさせることで、彼らの環境保護意識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実際に体験することで植える大変さが理解でき、採取しようとは思わなくなるのです。これが本当の目的です」と説明しました。

また、出雲農林高校の植物学専攻の教師と生徒たちはハマボウフウの育成方法の研究に取り組み、一連の研究成果を得ており、関連分野の全国大会で優秀な成績を収めています。

「長浜海岸砂丘地は、長浜地区の住民が最も大切にし、誇りに思う場所です。私たちにはそれを保護して後世に残す義務があります」と板垣会長は、ここにまつわる神話の話を紹介した後に語りました。白色は純潔、平和、神聖を象徴するように、白いハマボウフウはこの美しい神話の土地に育ち、善良な人々と純潔なハマボウフウは互いに守り合い、共に生きています。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s://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시마네 이모저모 편집자: 박혜영
발행처: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bunka-kokusai@pref.shimane.lg.jp
発行：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Bianca Chan Guo Xiaoxuan Carolina M Miura Park Hyeyeong Tang Cong